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2. 3. 18. 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 성 과	영종청라기반과
담 당	과장 천준홍, 제3연륙교정책팀장 박춘곤, 담당 박두로(032-453-7623)

## **“제3연륙교 건설 꼼꼼하고 안전하게…기술자문단 발족”**

토목구조 등 5개 분야 전문가·기술사 등 10명으로 구성…완공까지 정기적 안전점검  
 이원재 청장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업무 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꼼꼼한 점검” 당부

- 제3연륙교를 꼼꼼하고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한 기술 자문단이 발족됐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원재 청장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적기 개통과 안전 시공을 위한 기술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했다.
- 토목구조, 도로·공항, 토질·기초, 토목시공, 안전 등 5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기술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시공 단계별 현장 점검을 통한 품질과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- 이원재 청장은 “기술자문단이 제3연륙교 건설 과정에서 기술과 안전문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- 한편 지난해 12월 본 공사인 1·2공구가 착공된 제3연륙교 건설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기술제안 실시설계 완료, 가설 사무실 축조, 연약지반 처리, 해상 등부표 설치 등 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- 제3연륙교는 길이 4.7km,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의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포함됐다.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용돼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, 야간경관 등 시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·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된다.
-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△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수도권 서부권 역의 균형발전(개발촉진) △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△공항경제권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